섬유시장, 방염가공 관심 확대

방염가공 문의 부쩍 증가 … 일시적 아닌 지속적인 관심 필요

최근 대구지하철 참사로 건축과 산업용 방염제 뿐만 아니라 섬유시장에서도 방염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다.

섬유공장이 밀집해 있는 대구지역에서 빚어진 참사로 섬유 생산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에서도 방염제에 관련된 제품과 법 개정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화섬협회는 불연제 화섬 제품 사용 법제화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3월 태크스포스팀을 만들어 선진국 사례 등을 검토해 법제화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들어간다고 밝혔으며, 계면활성제 생산기업 역시 방염 관련 계면활성제를 새롭게 소개하거나 성능을 향상시켜 출시할 예정으로 있다.

하지만, 면 방염제는 가격이 비싸 일반 합성섬유 방염제보다 비용이 많이 들며, 방염제 처리시 인열강도가 약해 아직까지는 면 방염제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이다.

국내 섬유관련 방염제 공급기업으로는 Ciba Specialty Chemicals, Nika, Bayer, Rhodia, 삼영유화, 대성유화 등이 있으며 대부분 Polyester, 나일론, 면 등의 소재에 적용된다.

화재·방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섬유분야에도 방염가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시적인 분위기보다는 관련 소방법과 규제함으로써 지속적인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황현혜 기자>

<*Chemical Journal 2003/ 03/ 13*>